

# 문화충돌과 교류 그리고 역사와 사회에 대한 "와엘 샤키: 텔레마치와 다른 이야기들"

✎ 아트앤뉴스 김자희 기자 | ⓒ 승인 2025.03.04 09:40

-바라캣 컨템포러리 두번째 개인전  
-와엘샤키 'Wael Shawky: Telematch and Other Stories'  
-2025. 2. 28 (금) - 4. 27 (일)

바라캣 컨템포러리는 2025년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와엘 샤키(b.1971, 이집트)의 갤러리에서 두 번째 개인전 《와엘 샤키: 텔레마치와 다른 이야기들》을 선보인다.



와엘 샤키, <텔레마치 사다트>, 스틸 이미지, 2007,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10분 43초. 이미지 제공: 바라캣 컨템포러리

이번 전시는 와엘 샤키의 2000년대의 주요 초기 비디오 작업인 <텔레마치 Telematch> 시리즈(2007-2009) 중 세 작품, <알 아크사 공원 Al Aqsa Park>(2006), 그리고 <동굴(암스테르담) The Cave (Amsterdam)>(2005)을 재조명한다. 작가는 근래의 프로젝트에서 기존의 역사적 서술을 재해석하여 미술, 종교, 국가 정체성 등의 개념을 복잡하게 엮어내는 작업을 지속해 왔는

데, 이번에 전시되는 영상 작업에서도 구조적, 사회적 양극을 유쾌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탐구함으로써 그 맥락이 이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작업 당시 대중 매체에서 정보가 확산, 수용되는 방법론을 탐구하여 작품의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활용한 점은 이후 작품과는 다른 특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Wael Shawky\_Al Aqsa Park\_installation view 이미지제공 : 바라캣 컴템포러리

와엘 샤키는 1971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샤키의 가족은 70년대 원유 산업 부흥에 따라 외국인 전문 인력을 받아들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이주하였다. 작가는 베두인을 비롯한 여러 토착 민족의 전통과 급속한 현대화 물결이 공존하던 메카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자신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술회한 바 있다.

또한 이슬람 최고의 성지에서 자란 만큼 종교 역시 샤키의 작업 세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민이라는 키워드 또한 샤키의 작품 속 핵심 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유목과 도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등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한다. 와엘 샤키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변화하고 또 융합하기도 하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역사 서술과 사회 발전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파헤친다.

전시작 중 <텔레마치> 연작에 속한 세 작품 <텔레마치 사다트>(2007), <교외>(2008), <셸터>(2008)는 전시 공간 1층, 지하층에 걸쳐 전시된다. 연작의 제목인 텔레마치는 1970년대에 서독에서 방영된 버라이어티 쇼에서 따온 것으로, 여러 국가로 수출되어 사우디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작가는 어린 시절에 시청한 이 TV 프로그램으로부터 직접적인 영감을 얻어 텔레마치 연작을 작업하였다. 텔레마치 방송에서는 매 회 독일 내 두 마을이 나와 제한 시간 동안 경기를 벌여 승부를 겨루는데, 각 마을 주민이 기상천외한 복장을 하고 경기에 나서 무척이나 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한다. 샤키의 텔레마치 연작은 방송 프로그램 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충돌하고 교류하며 오락을 제공하는 구성을 차용한다.

〈텔레마치 사다트〉는 안와르 사다트(1918-1981) 이집트 전 대통령의 암살 사건 및 그 이후 치러진 장례식을 재현하는 작품으로, 이는 여전히 이집트 집단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73년 욘 키푸르 전쟁(제4차 중동 전쟁) 초기의 이집트 승리를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 중 발생했으며, 국가 방송이 이를 기록했다. 사다트의 서거 이후, 이집트에는 호스니 무바라크(1981-2020)의 또다른 독재정권이 들어서 30년간의 통치가 이어졌다. 작가는 사다트 전 대통령과 그의 암살에 대해 무지한 베두인 아이들을 데리고 암살 당일의 열병식을 재연하였다. 아이들은 군용 차량 대신 당나귀와 낙타들과 함께 행진을 벌인다. 샤키는 종종 아이들과 함께 작품 작업을 진행하거나 2000년대 이후의 작품에서는 꼭두각시 인형이나 가면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작중에 등장하는 연기자의 개별 연기나 그들의 사회적, 젠더적 역할에 따른 의도치 않은 해석을 피하기 위함이다. 작가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주관적인 견해를 덧붙이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일정 거리를 둔 채 역사적 사건을 되돌아보게 한다.



와엘 샤키, 〈동굴 (암스테르담)〉, 스틸 이미지, 2005,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자막, 12분 45초. 이미지 제공: 바라캇 컨템포러리

#### ◆ 작가소개 - 와엘 샤키

와엘 샤키(b.1971, 알렉산드리아)는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가이다. 영상 작업을 중심으로 드로잉, 페인팅,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와엘 샤키는 실제와 허구가 혼재하는 서사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 기존의 역사적 서술을 재해석하는 와엘 샤키의 작품 세계는 역사와 신화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토대로 예술적, 종교적, 초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함축한다. 폭넓은 주제와 난해한 이슈들을 흥미진진한 서사시로 엮어내는 와엘 샤키의 영

상 작업은 서정시와 같은 영상 언어를 통해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다룬다. 무엇보다도 서구권의 관점으로 고착된 아랍과 중동의 역사를 현대적인 서술로 번안하는 와엘 샤키의 작업은 어느 한 세계에 편향된 관점이 아닌 양자를 아우르는 치유의 방향을 가리킨다.

작가는 특히 중세 시대 무슬림과 기독교인 간의 충돌을 마리오네트로 재현한 <십자군 카바레 Cabaret Crusades> 삼부작(2010-2015), 아동 배우를 통해 신화를 재구성하는 <알 아라바 알 마드푸나 Al Araba Al Madfuna> 삼부작(2012-2016), 2024 베니스 비엔날레 이집트관에서 선보인 <드라마 1882 Drama 1882>(2024) 등의 작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현재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 미국 필라델피아를 오가며 활동하는 와엘 샤키는 알렉산드리아 대학과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텔뎅 리스 갤러리(2025, 예정), 대구미술관(2024), 베니스 비엔날레 이집트관(2024), 벨기에 루벤의 M Leuven (2022), 텍사스 포트워스 현대미술관(2021), 토리노의 카스텔로 디 리볼리 현대미술관(2016)과 메르츠 재단(2016), 뉴욕의 모마 PS1(2015), 런던의 서펜타인 갤러리(2013-14), 베를린의 KW 현대 미술관(2012) 등이 있으며, 주요 그룹전으로는 샤르자 비엔날레(2025, 2019, 2013), 이스탄불 비엔날레(2015, 2005), 카셀 도큐멘타(2012), 광주 비엔날레(2012), 베니스 비엔날레(2003) 등이 있다. 또한 와엘 샤키는 2015년부터 알렉산드리아에 '매스 알렉산드리아' 학교를 설립하여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와엘 샤키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MoMA), 런던 테이트 모던, 도하 마타프 아랍 현대미술관, 샤르자 예술재단, 국립현대미술관(MMCA), 구겐하임 아부다비 미술관, 바르셀로나 MACBA, 캐나다 국립미술관 등 세계 유수한 기관들에 소장되었다.

샤키는 그의 작품으로 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그 중에는 팔레르모 명예 시민권(2017), 샤르자 비엔날레 상(2013), 루이비통 영화 작품상(Kino der Kunst, 뮌헨, 2013), 아브라즈 캐피탈 아트 프라이즈(두바이, 공동 수상, 2012), 웨어링 재단 예술상(베를린, 2011), 그리고 제25회 알렉산드리아 비엔날레 대상(2009)이 포함된다. 2011년에는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의 The Center for Possible Studies에서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했다.

#### ◆ 전시개요

- 전시기간 : 2025년 2월 28일 (금) - 4월 27일 (일)

10시 - 18시 매주 월요일 휴관

- 전시 장소 : 바라캣 컨템포러리 (서울 종로구 삼청로 58-4)

- 예약 및 문의 contemporary@barakat.kr, 02) 730-1948



